

대전시립무용단 제75회 정기공연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평호

로미오 & 줄리엣 II

유성과예랑



2024. 5. 31.(금) 19:30, 6. 1.(토) 17:00 |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주최 대전광역시 대전MBC

주관 대전시립무용단

인사말

살아있는 죽음을 통해 죽음을 넘어선 사랑..! “로미오&줄리엣”
춤 통한 영혼의 울림과 확장(sound meditation)!
대지의 신성함과 생명의 존귀함,
그리고, 비로소 평화와 영혼의 화해 그 고요한 외침..! “유성과 예랑”

글로벌 춤극 ‘로미오 & 줄리엣 II - 유성과 예랑’은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글로벌(global)작 ‘로미오&줄리엣’을 새로운 시각과 작가적 상상으로 창작한 춤극으로
로컬 국가 문화유산의 로컬(local)이라 할 수 있는 옷다리 농악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줄타기와 줄다리를 메소드로
적극 활용해 원작이 갖고 있는 극적 구조와 우리 전통유산을 접목해 한국 춤의 정·중·동의 미학을 접목시켜 글로벌
(global)과 로컬(local)이 조화를 이룬 글로벌(glocal) 춤극입니다.

이 작품은 세계 속의 대전, 대전 속에 세계를 담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이탈리아 낭만도시이며, 기원전 1세기에 세워진 예술과 건축과학의 도시 베로나와 유성과 예랑의 배경인
과학 수도 아티엔스 대전과 접전으로 스토리텔링화 했으며 카스텔베키오(Castelvecchio) 전망대와 대전의 도솔산,
아디제(Adige)강과 갑천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거기에 원작의 성당을 두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유성 봉산동의
500년 느티나무와 서구 괴곡동의 700년 된 느티나무로 설정하고 춤의 정령들이 신부를 대신 하는데요. 원작을 중심
으로 한국적 정서를 녹여낸 글로벌 작품으로 작년에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은 이 작품을 완성도를 높이고 새로운
구성과 안무로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예술은 사유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했을 때 가치가 높습니다. 순수 예술인 무용은 대중 예술에 비해 팬덤이 약하기
때문에 관객 유치가 쉽지 않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빛나는 귀한 보석이 값어치가 높은 것처럼 온몸으로
혼을 그린 세상에 하나뿐인 춤극 ‘로미오 & 줄리엣 II - 유성과 예랑’은 소설보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영화같이
달과 별이 되어 시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05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김 평 호**



김 평 호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

Pyung Ho Kim

Artistic Director and Principal Choreographer

감성이 충만한 춤으로 역동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작 작품,
시대의 영혼이 살아있는 감동의 무대... 예술적 창의력은 위대하다.

김평호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는 樂, 歌, 舞一體의 가치를 표방하며, 수많은 예술적 경험들과 다양한 노하우의 축적
으로 전천후 예술가로서 큰 예술적 성과를 이루고 있다. 단원으로 출발해 지도위원, 훈련장 등의 역할과 창원, 청주시립
무용단 상임 안무자로서 수많은 작품의 안무와 공연으로 다양한 성과를 이뤘다.

또한 중국 동북 사범대학과 경주 대학교에서 교수로서도 교육자의 역량과 김평호류 ‘남도 소고춤’ 브랜드 개발로 한국
무용의 교본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넓은 활동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춤 춤극, 오페라, 뮤지컬, 연극, 창극, 다양한 축제 등의 안무와 연출로 꾸준히 무대를 확장해 왔으며, 한국 춤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패러다임 확립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리더십으로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
목표와 가치를 확고하게 한다.

운영의 가치는 三位一體(감독, 행정, 단원) 조화로움을 기본으로 삼고 열린 구조의 수평적 소통을 하였으며, 창작의
아이덴티티는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내면의 깊이를 통한 유의미한 현상을 극대화, 진정성을 담은 작품을 추구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춤꾼과 안무가로서 광대적 기질과 창작자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크리에이터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미래를 열어갈 한국 예술의 중심! 한국무용의 중심으로 도약과 생동감이 넘치는 대전시립무용단!!!

1985년 창단된 대전시립무용단은 1990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민속축전 참가를 시작으로 프랑스 디종축제, 미국, 멕시코, 중국, 일본, 호주, 세르비아, 이탈리아 등 각종 국제 페스티벌 행사에 한국 대표로 초청받아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예술성을 유감없이 선보였다.

2011년에는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으로 중국의 서안과 항저우에서 한국의 매력적인 춤사위로 중국 대륙을 감탄시키며 우리 춤 국제 브랜드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2016년 외교부 주최 스페인 수교 50주년 기념 주요 외교 계기 기념 문화행사에 한국 대표 무용단으로 선정되어 스페인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축하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진수를 선보이며 세계인에게 지역 무용단의 저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3년 외교부 해외 파견 문화예술공연단으로 선정되어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초청공연에 한국의 미(美)를 선보여 현지 교민들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대전시립무용단은 39년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대전시민과 호흡을 함께 하며, 과학, 문화, 행정, 교통중심도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연간 50여 회의 공연으로 지역 춤 문화 발전을 견인하며, 한국 춤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대전시민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문화예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2021년 김평호 예술감독 영입으로 한국무용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으며, 한국인의 숨결 속에 감추어진 역동성과 삶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무용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품의도

‘유성과 예랑’은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명작 ‘로미오 & 줄리엣’을 원형으로 하여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 예술적 요소를 활용한 창작 무용 작품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 작품은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비극적 사랑의 내러티브(narrative)를 사용함으로써 사소한 사건을 계기로 두 마을로 갈라져 극한으로 대립하던 한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된다는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다양한 갈등과 쟁점들로 인해 진영을 나누어 대립하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슬픈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하여 평화와 공존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메시지를 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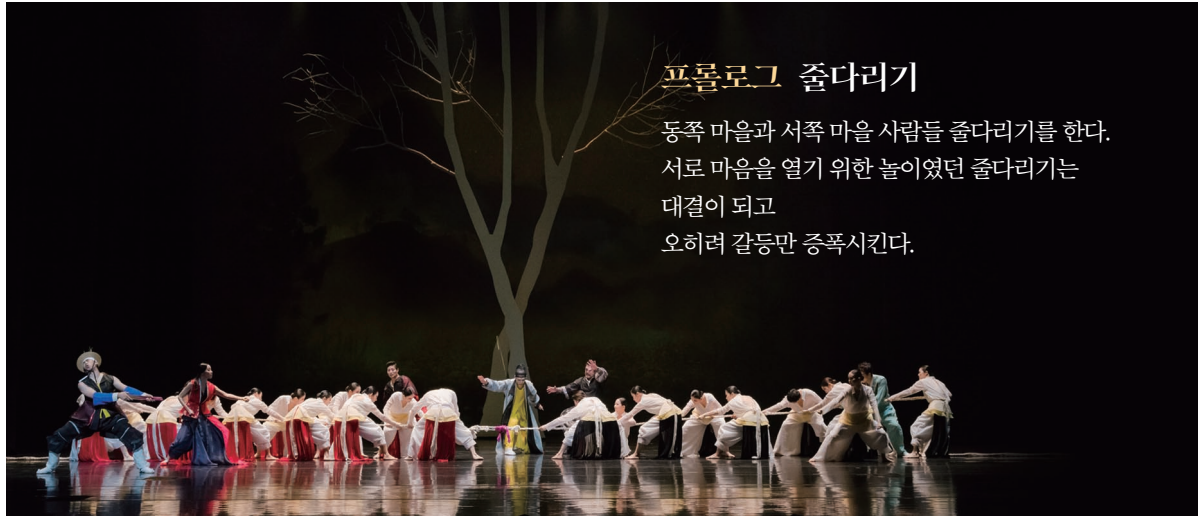
서곡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 아름다운 도솔산 아래 어디엔가 있는 상상 속 작은 마을!
오랫동안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평화롭게 살던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작은 갈등으로 결국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로 갈라져 원수지간이 된다.

그러나 동쪽 마을에 사는 예랑과 서쪽 마을 유성은 금기를 깨고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양쪽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힌 두 사람의 운명적 사랑은 비극적 결말로 치닫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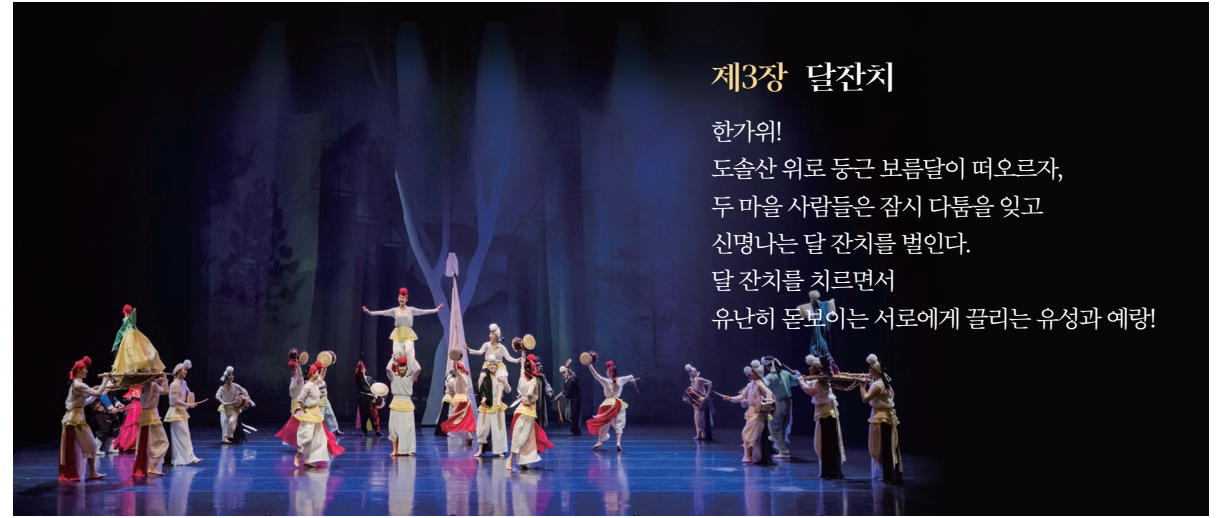
프롤로그 줄다리기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사람들 줄다리기를 한다.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한 놀이였던 줄다리기는
대결이 되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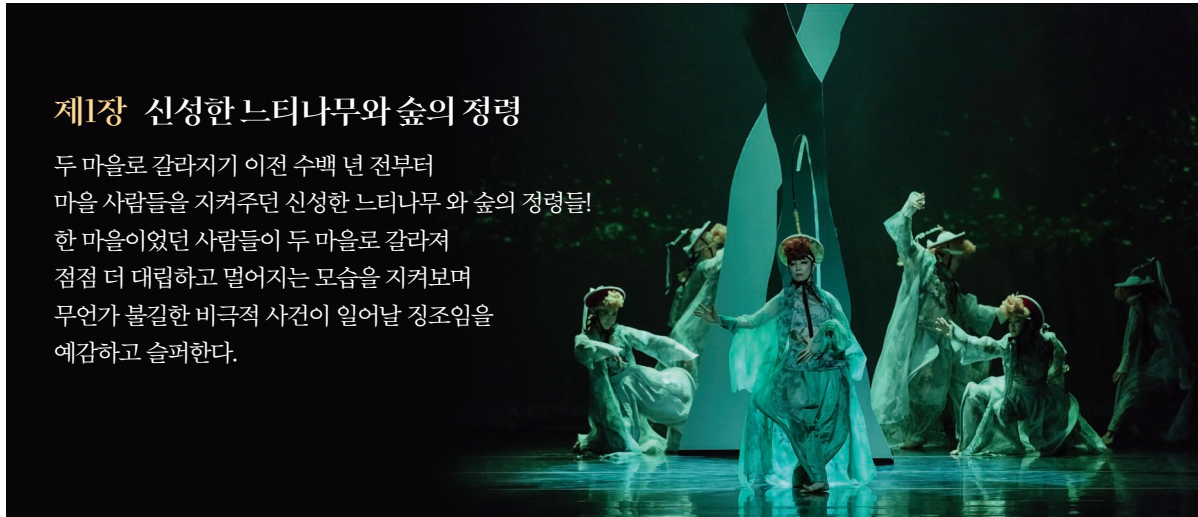
제3장 달잔치

한가위!
도솔산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오르자,
두 마을 사람들은 잠시 다툼을 잊고
신명나는 달 잔치를 벌인다.
달 잔치를 치르면서
유난히 돋보이는 서로에게 끌리는 유성과 예랑!



제1장 신성한 느티나무와 숲의 정령

두 마을로 갈라지기 이전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던 신성한 느티나무와 숲의 정령들!
한 마을이었던 사람들이 두 마을로 갈라져
점점 더 대립하고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불길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날 징조임을
예감하고 슬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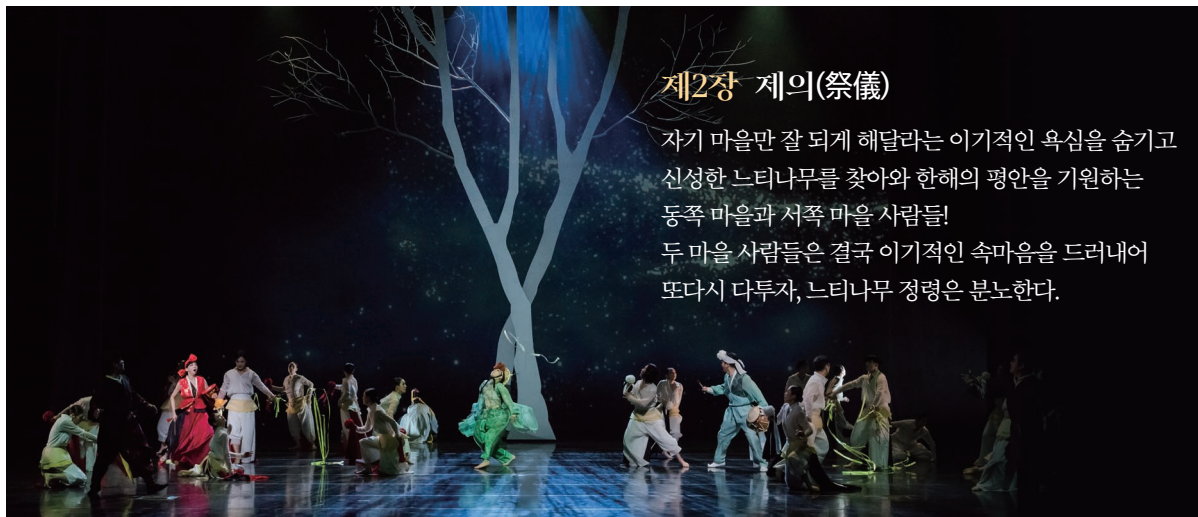
제4장 대결

달 잔치도 결국 대결로 얼룩지게 되면서
두 마을 사이는 점점 화해 불가능한 앙숙이 되어갈 때,
동쪽 마을 예랑과 서쪽 마을 유성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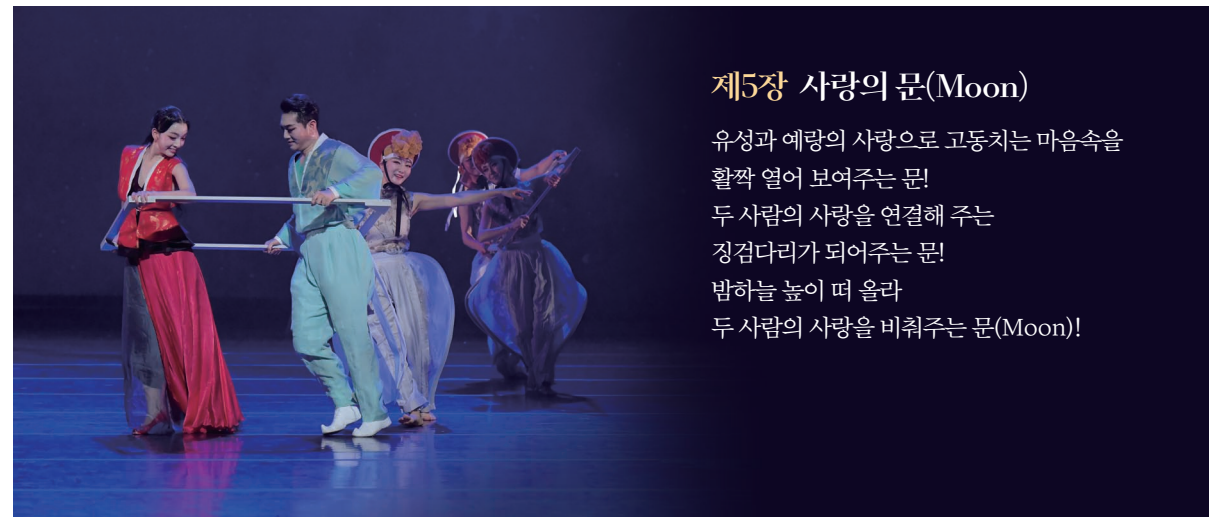
제2장 제의(祭儀)

자기 마을만 잘 되게 해달라는 이기적인 욕심을 숨기고
신성한 느티나무를 찾아와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동쪽 마을과 서쪽 마을 사람들!
두 마을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인 속마음을 드러내어
또다시 다투자, 느티나무 정령은 분노한다.



제5장 사랑의 문(Moon)

유성과 예랑의 사랑으로 고동치는 마음속을
활짝 열어 보여주는 문!
두 사람의 사랑을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문!
밤하늘 높이 떠 올라
두 사람의 사랑을 비춰주는 문(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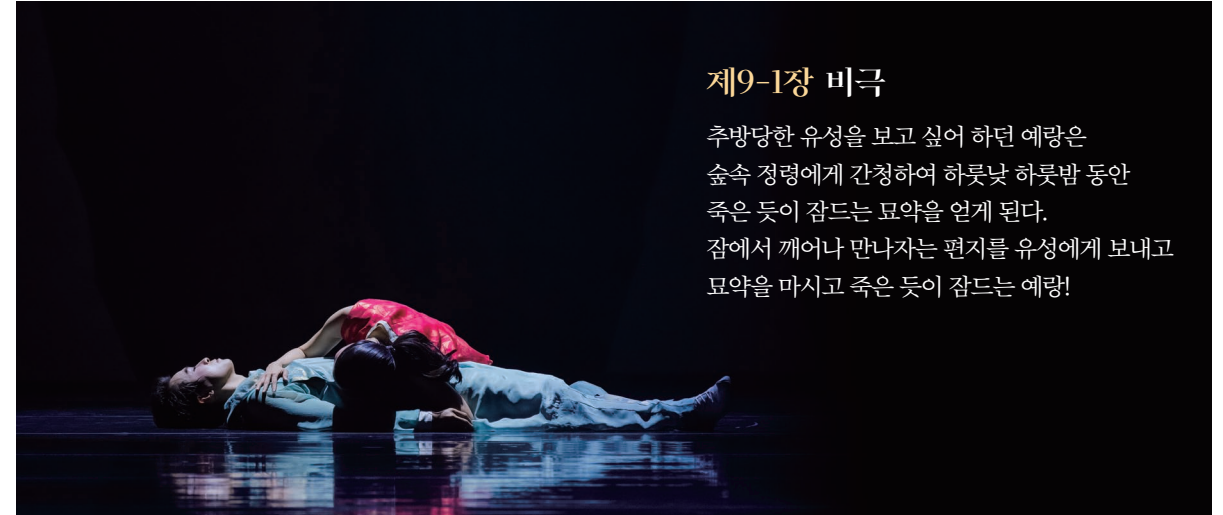
제6장 열애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고
유성과 예랑은 점점 더
달콤하고 뜨거운 열애 속으로
빠져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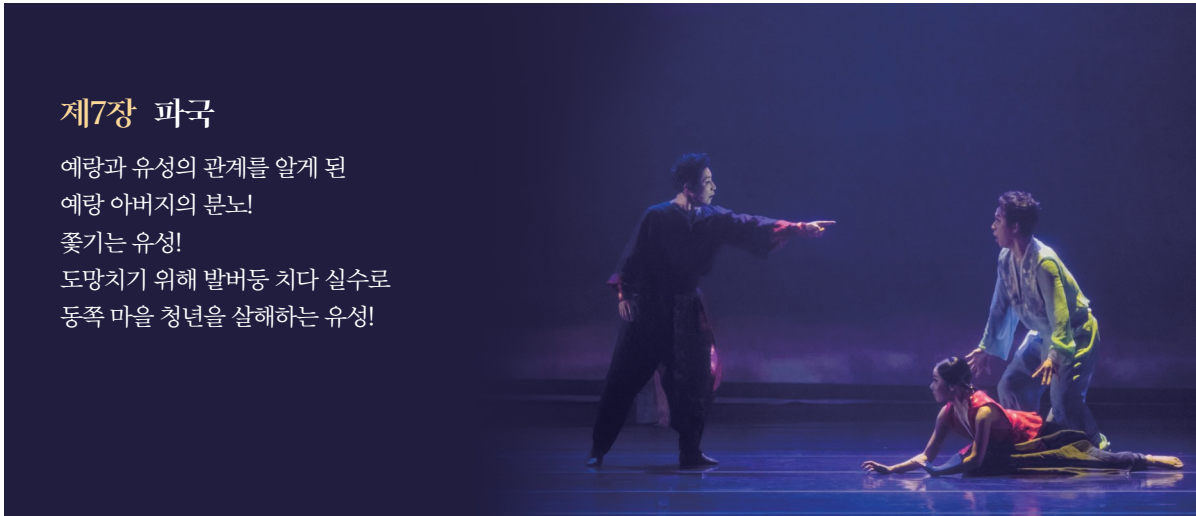
제9-1장 비극

추방당한 유성을 보고 싶어 하던 예랑은
숲속 정령에게 간청하여 하룻낮 하룻밤 동안
죽은 듯이 잠드는 묘약을 얻게 된다.
잠에서 깨어나 만나자는 편지를 유성에게 보내고
묘약을 마시고 죽은 듯이 잠드는 예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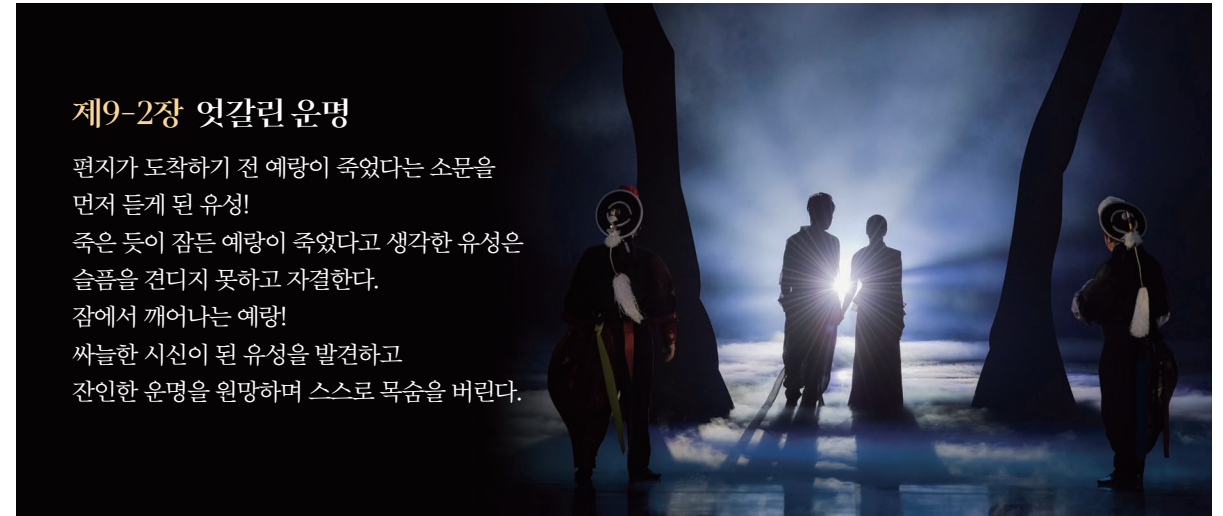
제7장 파국

예랑과 유성의 관계를 알게 된
예랑 아버지의 분노!
쫓기는 유성!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 치다 실수로
동쪽 마을 청년을 살해하는 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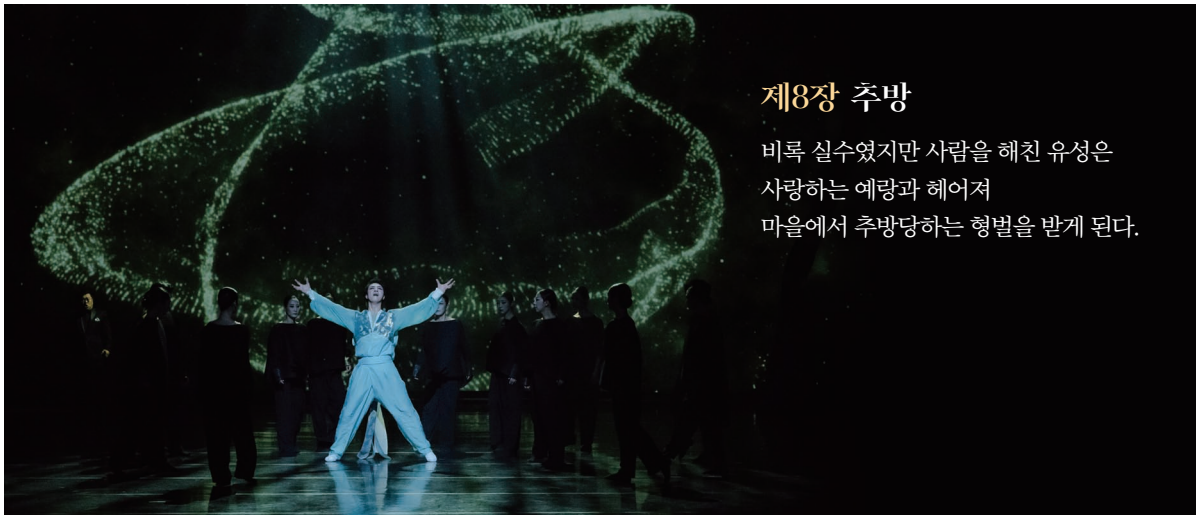
제9-2장 엇갈린 운명

편지가 도착하기 전 예랑이 죽었다는 소문을
먼저 듣게 된 유성!
죽은 듯이 잠든 예랑이 죽었다고 생각한 유성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결한다.
잠에서 깨어나는 예랑!
싸늘한 시신이 된 유성을 발견하고
잔인한 운명을 원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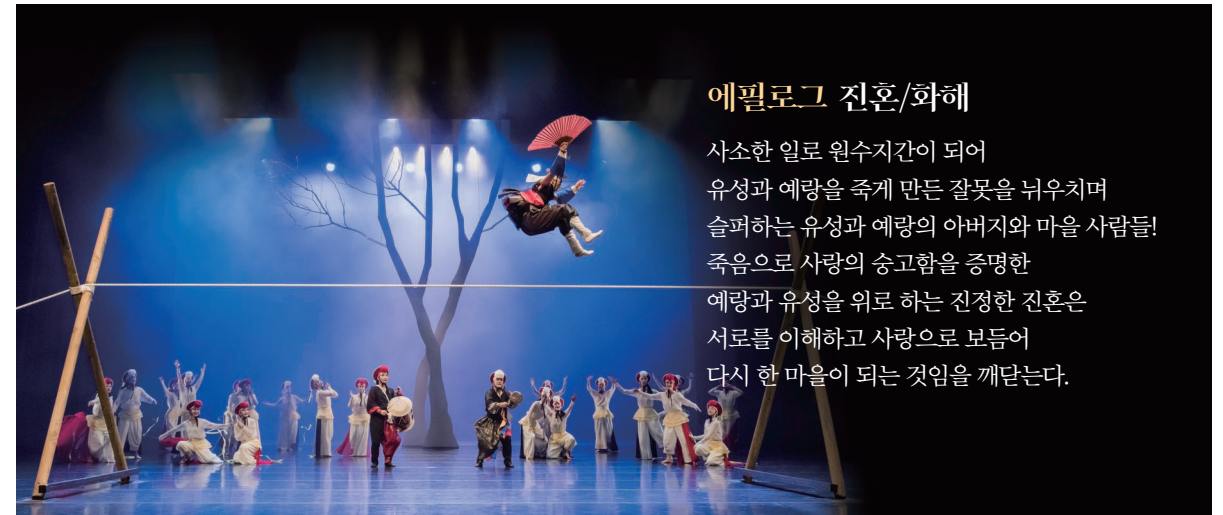
제8장 추방

비록 실수였지만 사람을 해친 유성은
사랑하는 예랑과 헤어져
마을에서 추방당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에필로그 진혼/화해

사소한 일로 원수지간이 되어
유성과 예랑을 죽게 만든 잘못을 뉘우치며
슬피하는 유성과 예랑의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죽음으로 사랑의 승고함을 증명한
예랑과 유성을 위로 하는 진정한 진혼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다시 한 마을이 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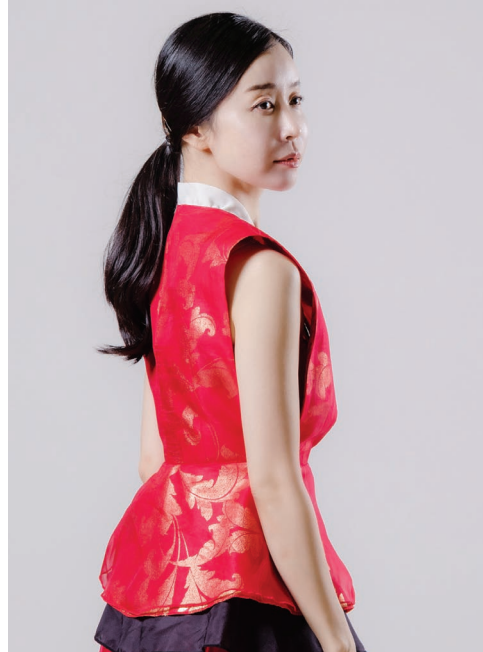
출연진

유성 | 5. 31.



김임중

예랑 | 5. 31.



이지영

유성 | 6. 1.



이현수

예랑 | 6. 1.



서예린

상쇠(유성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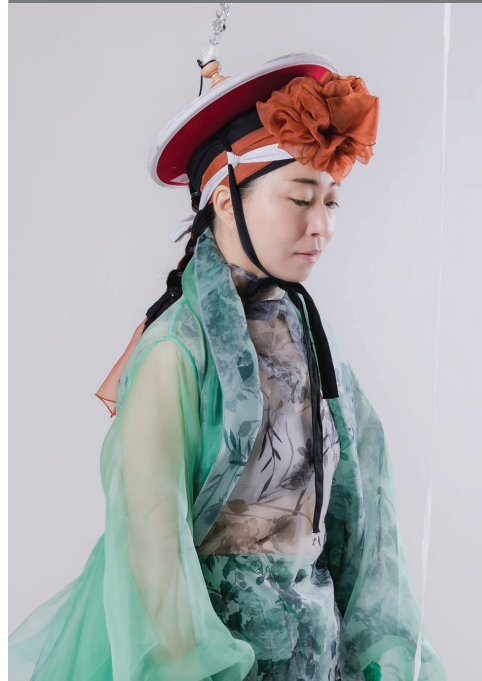
복성수

상장구(예랑 아버지)



배진모

느티나무 정령



육혜수

촌장



김기석

출연진 대전시립무용단

연습지도자 · 조안무



강영아 구서영

수석 · 조안무



김지원

수석



유미선 육혜수 유재현 이지영 김임중

부수석



김희영 이현수 김창은 임희정 서예린 김민중

상임



이미자 복성수 정명지 김한덕 광영희 류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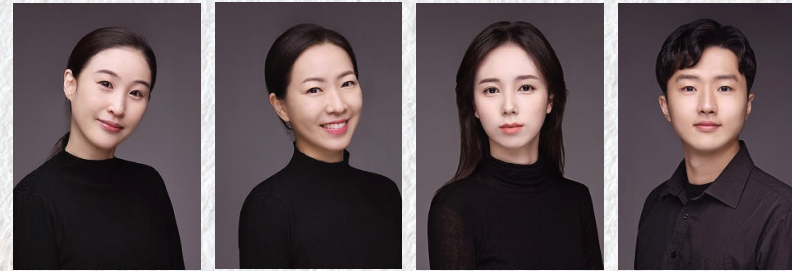
상임



김수진 장영희 구재홍 정인선 임자영 정세연



김설혜 오송란 이유라 장인실 김기석 배진모



복민선 유아리 이윤정 장재훈

객원단원



정지욱 김태린 나소연 김연지

특별출연 | 줄광대 신재웅



2022년
청와대 국민 품으로.. 날아라 줄광대 공연
천년의 꿈 줄광대의 화려한 비상 공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졸업

현재
국가무형유산 제58호 줄타기 이수자

출연진 및 스태프



대본 임오섭

- 프리랜서 작가 및 연출가
- 전) 경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특임교수
- 현)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객원 예술감독
- 현) 공연예술연구소너머 대표



작곡 조석연

- 중앙대학교 작곡과 졸업
- 독일 Rostock 국립음악대학 석사 및 예술최고학위 졸업
- 독일 Bernstein 작곡상 수상
- 부천문화재단 이사
- 현) 경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연출 노현식

- 창원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경기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구미시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역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협력안무자
- 현) 국립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타악감독 김행덕

- 대전무형유산 제1호 옷다리농악 전승교육사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이수자
- 제 64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통령상 “숫방이 두레”
- 사) 한국국악교육 국악지도사 자격증 심사위원
- 현) 타악그룹 “판타지” 예술감독 / 부여군충남국악단 지도위원



타악 정태영

- 대전무형유산 제1호 옷다리농악 이수자
-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전수자
- 제 64회 한국민속예술제 대통령상 “숫방이 두레”
- 현) 타악그룹 “판타지” 대표



태평소 박세은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학사
- 놀이마당 울림 단원
- 음악창작소 다락 단원
- 국악싱글앨범 <장산곶>, 국악동요 <제꿈은요> 음원참여
- 전) 세종국악관현악단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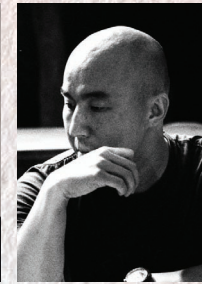
무대감독
한희태



음향감독
김성욱



조명감독
이유진



영상감독
우기하



의상디자인
민천홍



무대디자인
박경



영상디자인
한지원



분장
소인경 아트폼



소품
황태진



영상촬영
김희돈



사진촬영
강병삼

무대제작 무부 moubou

무대조감독 김지연 안승범 김경택 이동희

음향조감독 윤소라

조명조감독 김요한 임영직 이정원 최성민 양지훈

공연진행 김봉조 최유진

사무국

사무국장 고은랑

기획팀장 이은미

홍보담당 송은교

의상담당 문다비

로미오 & 줄리엣 II

유성과예랑

대전시립무용단 유료멤버십 안내

가입혜택 하나. 일 년 동안 모든 공연이 공짜!
둘. 동반자 30%할인
셋. 공연소식 우편, 문자 수령

▶ 가입비

개인회원 : 1인 기준 20,000원
가족회원 : 1인당 18,000원(10% 할인, 2인 이상)
단체회원 : 1인당 16,000원(20% 할인, 5인 이상)

▶ 가입방법

대전시립무용단 홈페이지 > 멤버십 > 유료멤버십 가입하기
※ 홈페이지 가입 후 유료멤버십 가입 절차 진행

▶ 가입문의

대전시립무용단 마케팅담당 042-270-8354

다음공연안내

가을밤 댄스 페스티벌

2024.09.12.(목) ~ 09.14.(토) 20:00
대전시립미술관 야외 특설무대



dmdt.artdj.kr



대전시립무용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대전예술의전당 내
문의 042)270-8353~5